

내장산,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다

정읍 KBS 열린음악회 성료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지난 26일 저녁 내장산 문화광장을 아름다운 선율과 행복한 기운으로 물들인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있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치러진 음악회는 오후 7시 반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역내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2만 5천여 명의 관람객들이 함께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즐겼다. 이번 공연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출연진 10팀이 출연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박애리와 팝관현조의 공연에 이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의 락커 박완규가 중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정읍이 낳은 최고의 가수 송대관의 대표곡 메들리가 이어지며 장년층까지 한껏 음악회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모모랜드가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전 연령층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껏 끌어올린 분위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부부인 손준호·김소현 부부가 공연의 퀄리티를 높였으며, 서문탁, 스트레이키즈의 무대가 이어지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여기에 최근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의 행보에 큰 힘을 더한 레드벨벳이 엔딩무대

를 꾸미며 열린음악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고 5분여간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 음악회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렸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과 정읍시문화제 30주년을 1년 앞둔 이 시기, 내장산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계절에 대한민국 최고의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이 음악회가 시민들에게는 고품격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되고, 전국에는 정읍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자료사진.

남원에서 '多문화 多같이 놀자'

김병종미술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多문화 多같이 놀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연기획자 장승현과 무용 사진작가 최영모, 공연 사진작가 박상운의 활나의 순간을 기록한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찰나·동행을 전시 중이며, 이와 연계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10시부터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多문화 多같이 놀자'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3D카메라를 만들어 색칠하고 사진 촬영하는 창의미술 시간을 마련해, 남원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캄보디아 이주연어학당 가족들과 지역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미술관 내 야외벤치에서 진행한다. 동 시간대에 이뤄지는 '미술관으로 간 인문학'은 서양미술이야기로 남원시민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미술을 보는 안목과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시간을 마련, 총 8강 중 현재 6강을 진행하고 11월 3일 마지막 강연이 진행된다. 27일 오후 3시 '공연 아카이브 사진전·찰나·동행' 인문학 강연은 '한무의 비밀 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의 현대무용가 김하숙 명예교수가 진행하고, 4시에는 '미술관에서 만나는 현대 춤' 사포, 말을 걸다의 현대무용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 천연한방삼푸를 만드는 공예체험이 진행되고, 체험 인원은 40명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아 전시 감상뿐만 아니라 공예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063-620-5660~1)으로 문의하면 되고, 전화 또는 현장 접수를 받으며 마지막 11월 28일 행사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1월 3일 '미술관으로 간 인문학' 마지막 강연에서는 신명섭 강사가 청소년과 시민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 지난 봄 3월 2일 개관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오면서 현재까지 2만명을 넘어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방문화원의 날' 유공자 선정

김선유 김제문화원장·이재명 진안문화원장, 문체부장관상 수상

김제문화원 김선유원장은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린 '2018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받았다. 2018 지방문화원의 날 행사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행사는 전국 231개 문화원장과 16개 시도문화원 연합회장 직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 등에 기여한 문화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대한민국 문화원상 등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성과 등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2012년부터 김제문화원장으로 취임했으며 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중앙 이사를 역임하다 2018년부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선유 원장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선유 원장은 "이번수상을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더욱더 소통하는 문화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이재명 진안문화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문화원의 날 유공자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방문화원의 날 유공자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2008년부터 전국 지방문화원과 문화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심사·선정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진안문화원장 직을 맡고 있는 이재명 원장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과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보존,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문화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명 원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용엽 진안향토문화예술연구회 회장도 올해 처음 개최한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시상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장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기적의도서관, 한권의 책 문학기행으로 '힐링'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오는 11월 3일 경남 하동일원으로 문학기행을 떠난다. 이번 문학기행은 한권의 책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올해 일 년 동안 한권의 책 독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독서문화 활동을 함께 해준 시민 40여명과 함께 한다. 기행단이 하동으로 향하는 것은 한권의 책 대표도서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오연호 작가가 저서에서 추천한 화개장터를 둘러보기 위해서이다. 작가는 우리나라 안에서 행복교육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화개중학교와 그 학부모들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철학이 배인 화개장터를 찾기를 권한다. 기적의도서관은 이번 기행을 통해 자연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그곳 학생들과 그들을 녀넌한 마음으로 뒷받침해 주는 부모들의 철학적 가치관을 간접적으로나마 엿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행단은 한국 문학의 큰 획을 그은 문학작품 '토지'의 촬영지인 최참관래도 둘러보

게 된다. 평사리 대지주인 최참관래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한 많은 근현대사를 뒤돌아보며 문학적 소양도 쌓을 예정이다. 그동안 2018 한권의 책 독서운동은 덴마크 행복사회의 비밀을 캐낸 일반도서 '우리도 행복할 있을까(오연호 저)'와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룬 아동도서 '미확인바이러스(이리아 저)' 두 권을 대표도서를 선정하여 3월 24일 선포식을 가졌다. 이를 시작으로 전시민이 함께 읽는 독서 릴레이, 저자와의 만남, 청소년독서연합캠프 등으로 진행해왔으며 12월 중에는 시민과 함께 일 년 동안 과정을 뒤돌아보는 생각 나눔의 행사도 갖을 계획이다. 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한권의 책'은 정읍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독서운동임을 강조하고, 내내에도 의미 있는 도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